

남도해양열차로 즐기는 '영호남 관광상품' 나온다

광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남도해양열차(S-Train)를 타고 영호남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상품이 나온다.

부산관광공사는 15일 "남해안 해양관광 벨트 구축을 위해 남도해양열차와 관광버스를 타고 영호남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는 해양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남도해양열차를 이용한 영호남 여행상품 개발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상

광주·전남·부산·경남 상생협력

송정~부산역 277.7km 상품 개발

다음달 광주비엔날레 첫 시험대

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 주말 부산관광공사와 광주관광재단이 협약을 맺으면서 영호남 교차 여행 상품 개

발이 구체화하고 있다.

새로 개발되는 해양관광열차 상품은 광주 송정역~부산역 277.7km 구간을 달리는 열차를 이용해 광주·전남·부산·경남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르면 내달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가 첫 시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 행사 기간에 순천, 광양, 여수, 부산, 마산, 진주, 하동, 남해 등 주요 관광지와 지역 특색을 들러볼 수 있는 코스가 검토되고 있다.

2030 부산엑스포 시민홍보단과 함께 지난 11일과 12일 광주를 방문한 부산관광공사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을 답사하며 지역 특화 관광문화 콘텐츠와 열차를 접목한 상품 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수도권 주민도 열차를 이용해 남해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국민적 열광도 담은 관광상품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오후에 출발

해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보고 다시 열차 타고 남해안 주요 관광지와 부산 시내를 여행하는 1박2일 또는 2박3일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부산을 비롯해 남부권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며 "영호남 교차 관광과 국제 관광 도시, 지역축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등을 위한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2023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에서 내빈 및 친환경농업인들과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해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열어가기로 결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K유기농 선도...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견인

도청서 친환경농업 다짐대회
농협본사 등 농도 이전 촉구도

전남도는 15일 도청에서 '2023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결의했다.

다짐대회에서는 친환경농업인의 뜻을 모아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록 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협회장, 농업 관련 유관기관, 친환경농업인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케이(K)-유기농을 선도하는 친환경 전남'을 주제로 열린 다짐대회는 우수 시군과 농업인 시상, 샌드아트 공연, 유기농 실천 퍼포먼스에

이어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소개, 탄소 중립 실현과 친환경농업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유기농 실천 다짐 결의에선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등 분야별 대표 6명이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및 저탄소 농업 실천 등 친환경농업으로 전남농업의 희망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강에선 정우석 광주전남연구원 박사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농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를 위해 저탄소 실현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유기농 1번지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을 통해 농산물

의 가공·유통 브랜드화 및 인공지능(AI) 첨단농업융복합밸리 조성, 국제 유기농 수출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여 "미래 농업은 친환경농업이 대세"라며 "전남의 '유기농' 브랜드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사)전남친환경농업협회 주관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 전남 이전' 건의문을 낭독하고, 2만2,000여 친환경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농도 전남으로의 이전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3만6,106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4,697ha로 전국 인증 면적의 63%에 이른다. /정근산 기자

'깜깜이·금품 논란' 조합장 선거 바뀌나

신정훈, 무제한 연임제한 등
관련 2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깜깜이·금품 논란이 거센 조합장 선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5일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제고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하고,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평가할 현실적 수단의 한계로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위탁단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발표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의



무화 등을 담았다.

또 현재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조합장에 상임뿐 아니라 비상임 임기도 포함하도록 했다.

제도공백을 이용해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해 장기 연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특정이 장기 재임할 경우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임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탁선거를 종합적으로 보완해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어민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박광은 의원,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응원

"지방재정 확충·경제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의원(수원시정·사진)이 14일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열 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전남도 1호' 기부자로 시행 첫 날인 지난 1월 1일 전남도와 고향인 해남군에 각각 기부했다.

당시 기부로 받은 답례품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지역 취약계층에 또다시 기부해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였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출향



향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홍보가 중요한 만큼 전남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홍보하고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근산 기자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의 : 062) 233-3999